

Wonder: 회복의 키링, 나의 바다를 담다

바다의 조각이 내 마음의 시간을 품었어요.

파도는 늘 같은 자리에 머물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감정은 언제나 다릅니다.

버려진 씨글라스 커스텀 작품과 미니휴먼, 스칸디아모스 천연이끼이 만나
‘나를 회복시키는 시간을 완성했습니다.

사색의 바다 속,
당신의 이야기를 담아보세요.

*Emotional
Circulation*

작품 설명:

이 제품은 모두 작가가 직접 커스텀한 회복의 키팅입니다.

하나하나의 키팅과 에코파우치는 모두 작품이자,

소장 가치 있는 유니크 피스입니다.

에코파우치는 한복자투리 원단과 폐자원으로 제작한 작품
2025 상반기 운현궁 개인전 <WONDERFULLTi:me - 사색의 중심에서>
의 시그니처 아트웍으로 커스텀되었습니다.

작은 젤리, 사탕, 동전 등 일상의 소품을 담을 수 있고,
키팅은 나만의 스토리텔링으로 다시 재구성할 수 있는
회복형 작품입니다.

“모든 제품은 나의 회복을 위한 한 조각의 예술이다.”

모든 제품은 나의 회복을 위한 한 조각의 예술이다.”

지속 가능한 나로 나아가기, WONDERFULLTi:me

<바다의 조각, 한복에 피어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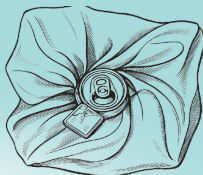
운현궁 하우스뮤지엄 고효경 개인전

2025.11.25(화) ~ 11.30(일)

업사이클링 아트 작가 고효경

010-9481-8174

Instagram: @feel8174



지속가능한 나로 나아가기
WonderFULLTi:me

Wonder: 씨글라스 커스텀 브로치 & 노리개

한복의 결, 바다의 시간.

전통과 현대가 이어지는 한 조각의 감정.

오늘의 나를, 아름답게 장식하세요.

The texture of hanbok, the time of the sea.

A fragment of emotion connecting tradition and modernity.

Adorn yourself beautifully, today.

Emotional Circulation

씨글라스를 캔버스 삼아, 한 조각의 예술로 피어나다.

이 작품은 버려진 유리와 자투리 한복 원단이 만나
전통의 결과 현대의 감성을 이어주는 업사이클링 아트입니다.

태슬을 달면 노리개로,
태슬을 달지 않으면 브로치로 연출됩니다.

노리개는 한복뿐만 아니라 자켓, 원피스, 정장에도
멋스러운 패션 오브제로 조화되며,
브로치는 가디건·니트백·청자켓 등
디자이너 감성의 포인트 소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작가에게 커스텀을 의뢰하면
원하는 콘셉트에 맞춘 맞춤 제작(Custom Order)도 가능합니다.

특별한 기념일 선물로 추천드립니다.

Sea glass reborn as a canvas of emotion.
A fusion of tradition and modern elegance,
crafted for your story and your moment.

모든 제품은 나의 회복을 위한 한 조각의 예술이다.”

지속 가능한 나로 나아가기, WONDERFULLTi:me

〈바다의 조각, 한복에 피어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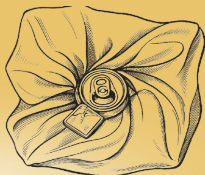
운현궁 하우스뮤지엄 고효경 개인전

2025.11.25(화) ~ 11.30(일)

업사이클링 아트 작가 고효경

010-9481-8174

Instagram: @feel8174



지속가능한 나로 나아가기
WonderFULLTi:me